

대구지방기상청, 폭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알린다

- 2023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 '기상정책홍보관' 운영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함동주)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리는 '2023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'에서 기상정책홍보관을 운영한다.
- 이번 기상정책홍보관에서는 △여름철 대구 도심 기온 특성 △폭염영향 예보 △21세기 후반 대구의 기후전망 △기상관측차량 전시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.
- 「여름철 대구 도심 기온 특성」에서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운 이유와 함께, 2022년 관측값을 기준으로 도심과 교외의 온도 차이에 대하여 알 수 있고, 「폭염영향예보」를 통해 농업·보건 등 분야별 폭염영향 위험 수준과 대응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.
- 또한, 미래의 기온·폭염일수·열대야일수·계절길이 등 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 분석된 「21세기 후반 대구의 기후전망」을 알 수 있으며,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「기후변화 퀴즈」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- 한편, 「기상관측차량 전시」를 통해 호우·태풍 등 위험기상 관측 및 산불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상관측차량을 소개하고, 2023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 시화그리기 대회 수상작 22점도 함께 전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.
- 함동주 대구지방기상청장은, “국제쿨산업전 참여를 통해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림과 동시에 급변하는 날씨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 라

며, “점점 빈도수가 많아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폭염,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여 지역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상기후 과학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장진호 (053-282-0160)
		담당자	주무관	김윤기 (053-282-0168)

